

유재석 지우고 ‘유산슬’ “짜 다 알아엿어주세요”

〈유산슬 노래 ‘사랑의 재개발’ 가사 일부〉

방송인 유재석이 트로트계 셋별 ‘유산슬’로 새로 태어났다.

유재석은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트로트 가수 도전 프로젝트인 ‘뽕포유’를 통해 ‘유산슬’이란 이름으로 데뷔했다. 팬들의 호응이 뜨겁다.

유재석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작곡가 박현우·작사가 이견우 등과 함께 트로트곡 ‘합정역 5번 출구’, 작사가 김이나·작곡가 조영수 등과는 ‘사랑의 재개발’을 함께 만들어 부르는 과정을 거쳤다. 태진아, 진성, 박상철, 홍진영 등 기성 트로트 가수들의 가창 지도와 지원도 받았다.

이를 통해 16일 ‘합정역 5번 출구’

와 ‘사랑의 재개발’의 음원을 발표한 그는 두 곡으로 19일 현재 멜론과 벅스의 트로트 차트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가사에 목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수로서 다양한 일정도 소화하고 있다. 18일 KBS 1TV 생방송 ‘아침마당-명불허전’에 신인가수로 출연한 그는 인천 차이나타운과 서울 합정역에서 게릴라 공연을 펼쳤다. 또 TBS FM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에도 게스트로 출연해 라이브 열창했다. 향후 지방 행사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팬들은 그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 ‘준비된 중고 신인’ ‘과거가 화려한 신

인’ 등으로 표현하며 유재석이 오랜 무명기간을 보내고 ‘유산슬’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놀면 뭐하니?’를 통해 ‘유산슬’이 탄생해 연출자 김태호 PD에 대해서도 ‘소속사 대표’로 부르는 등 반기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팬 카페에는 19일 현재까지 7440명이 가입했다.

김태호 PD는 19일 “궁극적으로는 유재석이 ‘유산슬’로 활동하면서 트로트 장르 자체가 업계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개그맨 유재석이 최근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 활동명은 ‘트로트계의 이무기, 유산슬’이다. 사진제공 | MBC



영화 ‘백두산’의 주역 이병헌과 배수지, 전혜진, 하정우(왼쪽부터)가 19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이병헌·하정우, ‘260억 대작’으로 뭉친다

‘백두산’서 화산 막는 주연 의기투합
이병헌 “하정우와 첫 호흡 기대된다”

배우 이병헌과 하정우가 영화에서 처음 만났다.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보며 “함께 영화를 하자”고 주고받은 약속을 마침내 ‘백두산’으로 이뤘다.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을 스크린에 펼치는 두 배우는 “현실감 넘치는 소재, 재난을 마주한 이들의 다양한 감정을 담았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백두산’ 제작보고회에서 이병헌과 하정우는 자신감은 물론 처음 호흡을 맞추며 쌓은 신뢰를 감추지 않았다. 이병헌은 “재난영화에 처음 도전한다는 사실도 중요했지만, 하정우와 버디무비 형식의 훈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컸다”고 밝혔다. 이에 하정우는 “희극과 비극을 오가는 이병헌 선배의 연기, 작품 선구안까지 모든 걸 좋아한다”고 화답했다.

‘백두산’은 한반도를 사라지게 할 위력의 화산 폭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이병헌은 폭발을 막을 열쇠를 전 북한 요원으로, 하정우는 열쇠에 작전을 지휘하게 된 남한 특전사 대위 역할을 맡아 남북 공조작전을 이

끈다. 여기에 지질학자 마동석, 작전 설계자인 청와대 민정수석 전혜진이 호흡을 맞춘다. 배수지는 하정우의 아내 역이다.

하정우는 공동제작자로도 참여했다. 앞서 ‘더 테러 라이브’, ‘터널’ 등 재난영화 주역으로 흥행을 맞본 그는 “그동안 재난상황에 혼자 놓였다면 이번에는 힘을 합해 막아낸다”며 “과거 실제 일어난 백두산 폭발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린 점이 매력적”이라고 꼽았다.

이병헌은 그런 하정우를 “행동력 강한 배우”로 정의했다. “하정우의 연출 데뷔작인 ‘롤러코스터’에서 택시가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보고 박수까지 친” 기억을 꺼낸 이병헌은 “나에겐 없는, 하정우의 과감함을 닮고 싶다”고도 했다.

‘백두산’은 순제작비 260억 원의 대작이다. 올해 한국영화 최대 규모다.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백두산 폭발을 구현하고, 강남역과 잠수교 등 서울 한복판에 닥친 재난상황도 담는다. ‘신과 함께’ 시리즈로 저력을 증명한 김용화 감독의 텍스터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아 시각효과와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다. 이혜준 감독은 “압도적인 스케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밝혔고, 공동연출자 김병서 감독은 “재난에 맞서 삶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인물에도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동백꽃...’ 한번 더 핀다

27·28일 2회분량으로 스페셜 방송

공효진·강하늘 주연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스페셜 방송을 준비한다. 애시청자들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이다.

21일 종영하는 ‘동백꽃 필 무렵’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스페셜로 꾸며진다. 연출자 차영훈 PD가 9월18일부터 21일까지 방송한 20부작을 2회 분량으로 재편집해 내보낸다. 극중 동백(공효진)과 용식(강하늘)의 사랑 이야기, 모성애와 ‘웅벤저스’ 등 마을 주민들을 통한 휴머니즘, 마지막

까지 긴장감을 안긴 연쇄살인마 ‘까불이’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 등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한다.

이는 드라마에 대한 KBS의 높은 만족감과 자신감에 힘입은 것이다. ‘동백꽃 필 무렵’은 6.3%(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시작해 20.7%까지 상승하며 고공행진했다. KBS는 성과를 최대한 이어가기 위해 다음 방송작인 ‘99억의 여자’의 첫 회 방송일까지 연기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드라마 관계자는 19일 “1회부터 20회까지 열렬히 봐준 시청자를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조그마한 팬 서비스”라며 “본 방송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장면을 다시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

11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서효림, 12월22일 김수미 머느리로



서효림

연기자 서효림(35)이 김수미의 머느리가 된다. 서효림은 김수미의 아들이자 식품업체 나팔꽃F&B의 정명호 대표(44)와 12월22일 결혼한다. 이들은 이날 양가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예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19일 2세를 가졌음을 공개했다. 이들은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초기이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0월 말 교제 사실을 알렸다. 서효림은 2007년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해 김수미와 2017년 MBC ‘밥상차리는 남자’에 이어 현재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 중이다.

전현무·신혜선, KBS연기대상 진행



전현무

축제의 진행자가 됐다. 신혜선은 지난해 ‘SBS 연기대상’에 이어 올해에는 KBS 무대를 이끈다.

편진 | 최혜경·유진환 기자

농약

한스농장 파워센 충전식 자동분무기
KC품질안전제품

한번충전으로 8시간 살포할수 있음



분무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간편하게 분무대만으로
작업 가능한
새로운 제품입니다

호수길이 40M 사용
100M 살포가능

아직도 무거운 분무기를 메고 작업하십니까?

- ▶ 호수길이 100m까지 연장가능
- ▶ 노년층과 여성분 사용적합
- ▶ A/S 보증기간 1년

공직총 070-8623-8245
장영판 010-2471-8245

무자본
부업전업

꼭 돈 바실분
맛집 식사 대접 해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 애디미 "미혼모 지원에 써달라"
100억 기부 -한국일보 2019년 6월 18일-
010-5337-7758

제191115-종-40519호

관절염, 디스크!

오십견, 팔, 다리, 허리,
어깨, 무릎통증!

비수술치료, 한약처방, 약침치료
남성 건강을 위한 한약처방, 약침치료
맑은아침한의원 02-464-7522

신용불량자 요금연체자

갤럭시 S10 5G / 아이폰XS MAX 할부개통 가능

휴대폰 현금 당장 쓰실분
현금 100~390만원 즉시지급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백화점 상품권증정

010-3914-3777
전국 출장 가능 (제주도 가능) (주말바른통신)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데워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최근 테이프 없이 장장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 (주입문의:063-232-5877)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라이터크기만한 각종회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등 사용처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카세트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 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편집을 할 수 있어 사업가, 자영업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수머니에 넣고 녹음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화내용을 선평하게 녹음 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래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계약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뻔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녹음 등에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나 휴대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사 역할도 특목히 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 김모씨(66· 경기도 안산시)는 “결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부인하거나 오리발을 내밀 경우 속수무책이었으나 이 제품을 사용하면사부터 상대방을 무력하게 해 분쟁해결이 열실을 제공했다”며 이 녹음기의 성능에 신기함과 놀라움을 표시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 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반복재생기능, 자체 스피커로 들을수 있는 기능,녹음시간 표시기능,삭제기능,음량조절기능,이 어폰 사용기능,우선전화 핸드폰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 063-232-5877 국제종합물산